

꼭! 알아야 할 국제회계기준 10가지

(금융감독원)

1

IFRS는 국제적 협업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고 있다. 제정과정에 세계 각국의 회계제정 기구가 참여하며, IFRS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개초안에 대하여 재무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현재 IFRS는 38개의 기준서와 27개의 해석서 등 총 65개로 구성되어 있다. IFRS와 미국회계기준과의 기준 합치 등을 위해 2011년말까지 재무제표 표시, 연결, 금융상품 등의 기준서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EU 회원국, 호주, 중국, 브라질 등 전세계 120여개국이 IFRS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도 2015~2016년 중 IFRS를 도입할 예정이다.



2

IFRS 도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

IFRS의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국가간 · 기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2005년에 IFRS를 도입한 유럽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회계기준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다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코스닥포함),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등은 IFRS를 의무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IFRS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IFR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타 비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 이원화에 맞춰, 회계기준 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각각 적용할 재무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008년	2009~2010년	2011년~
IFRS 적용 선택기업	현행 기업회계기준 (K-GAAP)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IFRS 의무적용기업			
기타 비상장기업			
			일반기업 회계기준

4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계정과목 배열체계가 다양해진다

IFRS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계정과목 배열체계가 다양해지고 간략해진다.

재무상태표에서 계정과목을 유동성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유동성배열법)과 유동성·비유동성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중에서의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기업들과 같이 자산을 '유형 자산→재고자산→현금'의 순으로 기재하거나, 자본을 부채보다 먼저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재무상태표 표시 사례(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단위 : 천원)

자산	2011년 12월 31일	자본 및 부채	2011년 12월 31일
비유동자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유형자산	350,700	납입자본	650,000
영업권	80,800	이익잉여금	243,500
기타무형자산	227,470	기타자본구성요소	10,200
관계기업투자	100,150		903,700
매도가능금융자산	142,500	비지배지분	70,050
	<u>901,620</u>	자본총계	973,750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장기차입금	120,000
재고자산	135,230	이연법인세	28,800
매출채권	91,600	장기충당부채	28,850
기타유동자산	25,650	비유동부채 합계	<u>177,650</u>
현금및현금성자산	312,400	유동부채	
	<u>564,880</u>	매입채무와기타미지급금	115,100
자산총계	<u>1,466,500</u>	단기차입금	15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
		당기법인세부채	40,000
		유동부채 합계	<u>315,100</u>
		부채총계	492,750
		자본 및 부채 총계	1,466,500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계정은 성격별(예: 감가상각비, 원재료구입, 종업원급여 등)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비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별·성격별 비용 분류 사례

<u>기능별 분류</u>		<u>성격별 분류</u>	
	<u>2011년</u>		<u>2011년</u>
수익	390,000	수익	390,000
매출원가	<u>(245,000)</u>	기타수익	20,667
매출총이익	145,0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기타수익	20,667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물류원가	(9,000)	종업원급여비용	(33,000)
관리비	(20,000)	감가상각비와기타상각비	(19,000)
기타비용	(2,100)	기타비용	(6,000)
금융원가	(8,000)	금융원가	(15,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u>35,100</u>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u>35,100</u>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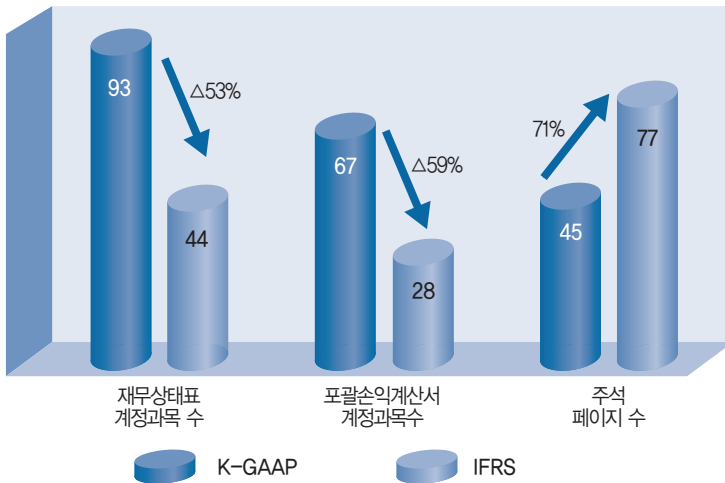
5

IFRS 재무제표 주석에 알짜 정보가 들어있다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 본문은 간략해지는 반면, 이를 보충 설명하는 주석 페이지 수는 크게 증가한다. 또한, IFRS에서는 K-GAAP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환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등에 대한 관리정책, 환율 등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등 투자에 유용한 정보가 주석에 추가된다.

따라서, 재무제표 주석에 알짜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연계하여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제표 공시결과 분석



6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는 재무제표 주석을 보라

☞ 2011년 공시하는 IFRS 최초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과거회계기준인 K-GAAP에서 IFRS로의 전환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이조정내역이 공시된다.

아울러 2010년말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된 사전공시사항을 통해 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상기의 주석사항을 통해 과목별, 요인별 기준변경에 따른 수치변동 및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재무분석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차이조정내역 공시사례

(단위 : 백만원)

과목	과거 회계기준	금융자산의 손실과 대손	재평가이익	확정급여부채	종업원급여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법위변동	기타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2009년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⑨	2009년말
합계									
자산									
1. 비유형자산									
유형자산	2,066,411	-	-	-	-	-	15,824	-	2,104,235

(중간 생략)

미지급법인세	20,231	-	-	-	-	-	156	-	20,387
유동부채 합계	1,968,263	-	-	-	21,933	38,021	3,395	95	2,031,707
부채 총계	2,766,430	1,160	10,033	(44,064)	21,933	38,021	4,892	(37,794)	2,762,611
자본 및 부채의 총계	5,562,945	5,836	-	(8,121)	6,165	38,021	6,722	(30,404)	5,581,228

7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가 달라진다

☞ 지분율이 30%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현행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분율이 30%~50%이면서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

한편, K-GAAP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 벤처캐피털 · 뮤추얼펀드 · 단위신탁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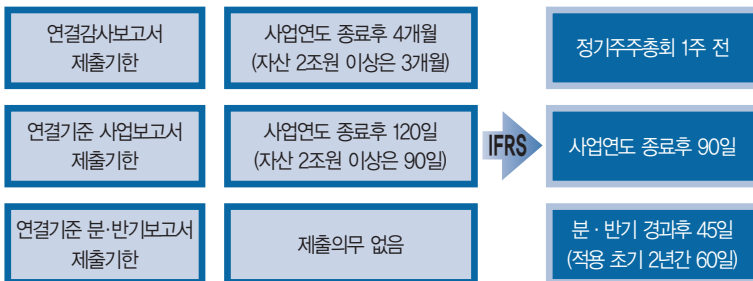
8

회계 · 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

☞ IFRS 도입에 따른 연결중심 공시체계의로의 전환에 맞추어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주총 1주 전에 공시되는 등 제출기한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결 실적을 종전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공시된다.

따라서 재무정보이용자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이 중요해졌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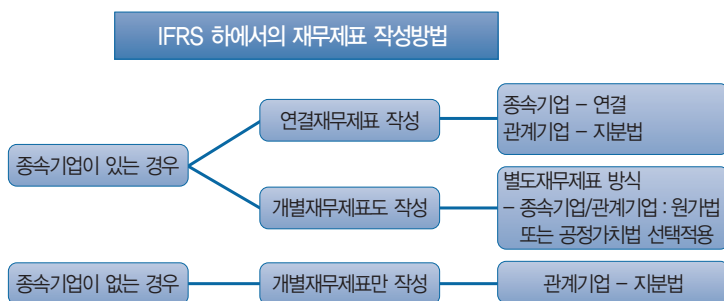
개별재무제표는 계속 공시되며 연결 여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진다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IFRS가 도입되더라도 배당, 세금계산, 건전성 감독 등의 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계속 공시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이 K-GAAP과 달라진다.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종속·관계회사의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투자자산을 최초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현행과 같이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변화가 없다.



10

IFRS 도입 후 재무제표 수치는 얼마나 바뀌나?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업종, 기업의 특성, 연결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IFRS 조기적용기업 분석결과, IFRS 도입 영향은 연결범위 변동, 유·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확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연결범위 변동효과를 제외하면 크지 않았다.

다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K-GAAP에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종속기업이 IFRS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무수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IFRS 도입으로 지분율에 의한 연결범위가 상향 조정(30%→50%)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영성과는 지분법을 통해 지배회사의 지분만큼 반영되므로, 연결당기순이익을 총액으로 단순비교하지 않고 지배주주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제외되므로 회계기준 변경효과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IFRS 도입후 연결당기순이익이 4,700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은 800억원 감소에 불과하여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 연결당기순이익이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구분 공시되고 있어 쉽게 파악가능. 참고로 주당이익(EPS)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

삼성전자의 2009년 연결당기순이익 변동현황

(단위 : 원)

구 분	K-GAAP	IFRS	차이
연결당기순이익	10조 2,300억	9조 7,600억	△4,700억
-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9조 6,500억	9조 5,700억	△800억
-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5,800억	1,900억	△3,900억